

## 2007년도 육계 임의자조금 사업 시행

### 본격적인 닭고기 소비홍보 사업에 착수

본회는 지난 10월 8일 농림부에 제출한 '2007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이 승인(2007. 10. 11, 농림부)됨에 따라 육계 임의자조금 사업 시행에 착수했다.

이번 육계 임의자조금 사업은 본회 회원사에서 10억원, 보조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소비홍보 사업 11억4천2백만원, 교육·정보제공 사업 2천6백만원(운영비 6백만원, 예비비 8억2천5백만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 육계자조금 자문위원회 개최

### 닭고기 소비홍보 대행사 1차 선정



본회는 지난 10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로 닭고기 소비홍보 대행사

2곳을 선정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총 6곳의 홍보대행사에서 제안한 닭고기 소비홍보 내용을 평가한 결과 2개 업체(모빅스, KECC)를 프리젠테이션 실시 업체로 선정했다.

## 제2차 육계자조금(임의) 관리위원회 개최

### 육계자조금 사업 추가조정 승인



본회는 지난 10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육계자조금 사업 추가 조정 승인요청(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생계시세 기준으로 닭고기 값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관련 개선책 강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과, 닭고기 우수성을 청소년층 등에 널리 알려 소비자변 확대를 위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사업'의 추가 조정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안)은 향후 농림부의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지난 10월 24일 육계자조금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2개 업체(모빅스, KECC)를 평가해 홍보대행사를 결정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광고 방향의 정확성 ▲광고의 창의성 ▲광고 대상의 적절성 ▲아이디어 표현 ▲홍보사업 수행능력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종 결과 KECC가 선정됐다.

### 기획팀장 회의 개최

#### 계육산업 당면과제 대책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10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기획팀장 회의를 갖고, 계육산업 당면과제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계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생계시세 체제를 도계육 시세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한 업계의 합의 및 동의, 구체적인 준비작업과 외부 용역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제도지원 정비, 업체간 정확한 데이터 공유 필요, 선진화된 소비문화 및 다양한 요리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2008년도 다이어리 제작

#### 3,000부 배포 예정

본회에서는 회원사를 비롯 계육관련 업계,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8년도 다이어리 3,000부를 제작, 11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다이어리에 광고를 게재하길 원하는 회원사나 업체는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 다음 -

- 판형 : 153mm×222mm/25절, 스프링 시스템형 고급 다이어리
- 제작부수 : 3,000권(자사 추가 인쇄 물량 제외)
- 수록내용 : 회원사 및 육계관련 업체 주소록, 육계관련 내용
- 광고금액 : 내지1면 : 3,500,000원  
                  내지3면 : 3,000,000원  
                  내지2면 : 2,500,000원  
                  일반면 : 2,000,000원
- 광고신청 : 2007. 11. 15일까지(담당자 : 김효진 대리)
- 문의 : (031)707-5722~4

###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오는 11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연재됐던 '해외소식' 코너를 필자인 박진호 대표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2008년도에는 새로운 필진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